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3
----------	------

발의연월일 : 2024. 7. 12.

발 의 자 : 김위상 · 박충권 · 임이자
김형동 · 김성원 · 김선교
최은석 · 김승수 · 주호영
우재준 · 서범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122조제1항에”를 “제122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외파견
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재적용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파견자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